

농심켈로그, '프로틴 그래놀라 다크초코볼' 출시

농심켈로그가 '프로틴 그래놀라 다크초코볼'을 내놓았다. 푸레이크, 그래놀라, 볼 등 모든 재료에 건강한 프로틴을 가득 채웠다. 진한 다크초코맛의 프로틴볼을 넣어 달콤 씹새름함과 바삭한 식감으로 맛있게 단백질을 즐길 수 있다. 바삭한 식감의 쌀 푸레이크를 부러운 슈거로 코팅해 은은한 달콤함을 느낄 수 있고, 콩 단백질로 영양을 강화한 그래놀라로 고소함을 더했다.



10주년 맞은 K쇼핑, 새 브랜드명 공개

“‘KT알파 쇼핑’으로 새 출발…브랜드 전면 개편”

T커머스 K쇼핑이 'KT알파 쇼핑'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하고, KT그룹의 대표 커머스 플랫폼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KT 자회사 K T알파가 운영하는 K쇼핑은 2012년 론칭한 이래 음성결제, 모바일-TV앱 동시 라이브 등의 혁신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는 등 10년간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의 디지털 홈쇼핑 방송을 지향해왔다. 올해 론칭 10주년을 맞아 새 브랜드 KT알파 쇼핑을 통해 '제2의 개국'을 한다는 각오로 브랜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KT그룹 대표 커머스 플랫폼 도약 “최고의 쇼핑 경험 제공” 의지 다져 해외브랜드·PB 확대로 경쟁력 UP TV·모바일 화면, 직관적으로 변경 원터치 결제 ‘알파페이’ 적용 예정

●KT그룹의 대표 커머스 플랫폼으로 도약

25일 서울 목동 K쇼핑 미디어센터에서 ‘뉴 브랜드 선포식’을 열고, 새 브랜드 비전과 슬로건을 공개했다. 새 브랜드는 6월1일 TV채널, 온라인, 모바일 앱 등 전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유통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사업 본격화에 나선다.

대표 커머스 브랜드명을 기업명과 연계한 ‘KT알파 쇼핑’으로 개편함으로써 KT그룹의 대표 커머스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KT그룹이 갖는 신뢰도 및 고객 인지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상이 알파가 되다’라는 새 슬로건에는 고객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고객 모두가 알파(최고)가 될 때까지 더 쉽고, 편리하고, 빠른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



K쇼핑이 6월1일 ‘KT알파 쇼핑’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하고, KT그룹의 대표 커머스 플랫폼으로 새 출발한다. 뉴 브랜드 선포식에서 발언하는 정기호 KT알파 대표(위 사진)와 임직원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KT알파

다”는 실천 의지를 담았다.

향후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패션·뷰티 카테고리 중심으로 PB(자체브랜드) 확대,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빅브랜드 및 해외 유명 브랜드의 독점 라이선스 확보, 단독 기획상품 라인업 등을 강화한다. 또 유·무형 상품 및 NFT(대체불가토큰)를 융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유통 경쟁력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브랜드 체계 개편 및 서비스 고도화

새 브랜드 가치를 반영해 KT알파 쇼핑만의 쇼핑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브랜드 체계 개편도 단행한다. 특히 플랫폼 진입부터 상품 탐색, 주문까지 쉽고 간

편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우선 TV와 모바일 앱의 화면구성 환경을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으로 변경한다. TV채널 안에서 리모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인 TV앱 메뉴를 기존 상단 가로형에서 좌측 세로형 구조로 변경해 포털 사이트 검색에 익숙한 고객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모바일 앱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활용해 상품 카테고리 알아보기 쉽게 구성하고, 상품 상세화면 내 혜택 및 부가정보를 강조한다.

상품 검색 시에는 TV채널에서 ‘화면크게보기’와 ‘방송편성표’를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진입 단계를 축소하고, 현재 방송 중인 라방(라이브방송)과 기존 인기상품 방송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모바일 앱에서는 이전 상품 검색 및 구매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쇼핑트렌드’ 메뉴를 신설해 고객가치를 증대한다.

상품 구매를 원할 경우, TV 시청 중 방송 하단의 QR코드를 사용해 모바일 앱에서 간편히 주문할 수 있다. 원터치 결제가 가능한 자사 결제시스템인 ‘알파페이’를 7월1일 모바일 앱에 적용한다. 카드 및 계좌 간편등록을 해두면, 이후 상품 구매 시에 추가 정보입력과 인증절차 없이 간편히 터치만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

정기호 KT알파 대표는 “TV와 모바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쇼핑 경험을 토대로 언제 어디서나 플랫폼 접근부터 상품 검색, 결제까지 쉽고, 편리하고, 빠르고, 즐겁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고객 일상을 일파(최고)로 만드는 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동행복권, ‘동행더하기 봉사활동’ 실시 어린이날 맞아 취약계층 아이들에 도움

동행복권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동행더하기 봉사활동’(사진)을 진행했다.

동행복권 임직원 및 일반봉사자 등 총 50명과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가 협업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웰빙 샌드위치 브랜치 박스와 간식세트, 비오는 날과 야간 통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우산과 키링(열쇠고리)을 제작했다. 웰빙 샌드위치 브랜치 박스와 간식세트는 서울 지역 취약계층 가정 504가구에, 또 안전우산과 키링은 섬마을 지역 취약계층 가정 500가구에 전달했다.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활동을 기획했다”며 “브랜치박스, 간식세트, 안전키트, 키링 등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달돼 특별한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유사나코리아, 스노보드 이상호 5년 연속 후원



유사나코리아는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사진)와 5년 연속 뉴트리션 후원을 체결했다. 2018년부터 유사나와 후원 인연을 맺은 이상호 선수는 비타민 미네랄 제품 헬스팩을 비롯해 설상 종목 특성에 맞춰 면역기능

에 도움을 줄 프로글루타민, 눈을 보호하는 비전엑스 디에스, 체중관리를 위한 뉴트리밀 액티브 등을 후원받고 있다. 유사나는 스노보드 발전에 기여한 이상호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5년 연속 뉴트리션 후원을 기념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별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건강 올레길 | 우리 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유방암, 정기검진 통해 예방 가능 유방초음파로 검사 정확도 높여야

유방암은 정기 검진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암으로 꼽힌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유방암 1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5년 이상 생존률이 98.3%에 달한다.

문제는 유방암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여 조기 치료 타 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성 10만 명당 10명을 넘어섰다. 한국유방암학회는 30세 이상 여성의 경우 매월 유방 자가 검진 시행을 권장하고 있다. 35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2년 간격으로 전문의 주도로 아래 정기 유방 건강검진을 시행할 것을 권장하는 추세다.

유방암 위험 인자로 여성호르몬, 고령, 출산, 음주, 방사선, 유전 등이 꼽히지만 확실하게 규명된 것은 없다. 이는 유방암의 위험 인자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방암 검진 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유방의과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성가능성 병변이라면 6개월 추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악성가능성, 악성 등이면 유방초음파 검사와 조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유방암 검진 결과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검사 등을 병행해야 한다. 치밀유방이라면 유방촬영술 진단 결과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방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유방암 검사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미세석회화 형태의 유방암은 유방촬영술로 확인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를 적절히 주기에 맞춰 실시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미유익과 이승현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독일서 ESG 혁신 이끌 인재 찾는다

‘BC투어’ 통해 우수 인재들과 소통 옥스퍼드대 등 석·박사 30여명 초청 신 부회장 “혁신기술, 인재 통해 시작”

신학철 LG화학 부회장(CEO)이 유럽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 기술을 이끌 인재 확보에 나섰다.

LG화학은 신 부회장이 27일(현지시간) CTO(최고기술책임자) 유지영 부사장, CH O(최고인사책임자) 김성민 부사장 등과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타이겐베르거 호텔에서 열린 ‘BC(Business & Campus)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BC투어’는 주요 경영진이 직접 현지 우수 인재들과 소통하며 현장 인터뷰까지 실시하는 대표적 글로벌 인재 확보 활동으로 CEO의 해외 출장과 연계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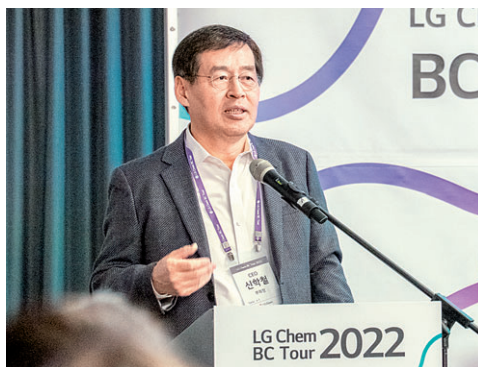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영국 옥스퍼드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 독일 훔볼트대 등 주요 20여개 대학에서 ESG 관련 신사업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석·박사 30여명이 초청됐다.

신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전 세계 리더들 사이에는 탄소중립과 자원 선순환 등 환경에 직결된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LG화학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친환경

경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전기 소재, 글로벌 혁신 신약을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인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세상에 없던 혁신 기술이 필요하며, 그 기술은 여러분과 같은 인재들을 통해 시작된다”며 “전 인류적 과제 해결을 위해 연구에 전념하고 계신 여러분이 LG화학의 도전에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LG화학은 2050 넷제로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선언하고, 사업 포트폴리오까지 ESG 기반으로 혁신하고 있다. LG화학은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2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석·박사 대상 채용 행사인 ‘BC투어’를 직접 주관하고 있다. 사진제공 LG화학

환경 중심 3대 신사업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체 매출은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가 넘는 60조 원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정지선 현대백 회장, 한국능률협회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더현대 서울’ 성공적 오픈 평가 받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사진)이 27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제52회 한국의 경영자상 시상식에서 ‘2022년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했다.

‘한국의 경영자상’은 한국능률협회가 1969년부터 국내 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존경받는 경영자를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 선보인 더현대 서울의 성공적인 오픈을 통해 오프라인 유통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특히 더현대 서울의 개발 콘셉트 수립부터 공간 구성까지 직접 챙기며 혁신적 공간 설계와 세계적 콘텐츠 큐레이션, 미래형 테크놀로지를 접목시켰다. 그 결과 더현대 서울은 코로나19 속에도 개점 1년 만에 매

출 8000억 원을 돌파하며 백화점 업계 최단 기간 연매출 1조 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 과감한 인수합병(M&A)과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현대백화점그룹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와 선순환하며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정정욱 기자